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맑음

제목 :

가족 일과

아침 6시에 기상했습니다. 영아는 친구집에 있었고, 아버지는
 야채회를 갔었다. 그래서 방과후활동을 먹었다. 그리고
 심심해서 컴퓨터를 켜고 웹툰을 봤다. 악플게임과, 내일 온
 웹툰을 보았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TV를 보는데 영아가
 왔다. 그런데 영아 친구까지 왔다. 영아가 쿼라면을
 사와서 그걸 아침으로 먹었다. 그리고 11시까지
 놀다가 점심을 먹으러 갔다. 지하철을 타고 목동에
 있는 예술리 갔다. 예술리에는 영아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둘 4명이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는 영아 친구분들이 주신 용돈으로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 집에 와보니까 형이 아직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TV를 보면서 기다렸다. 개라리 끝에 형이 돌아
 왔는데 뭘 사 왔다. 김밥과 죽먹밥을 사와서
 점심으로 먹었다. 그래서 나는 4시부터 11시
 까지 컴퓨터를 하고, 이불을 거실에 갖고와서
 TV를 보면서 잤다.